

Issue Comment

2018. 5. 9

CJ 프레시웨이 051500

1Q18 Review

●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Comment

영업이익 컨센서스 20% 상회하며 전년비 성장 기록.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서도 전년도 신규 수주 물량 매출액 발생효과와 7~8%의 급식 단가 인상 40~50% 진행으로 최저임금 인상영향을 상쇄시키면서 영업이익 증가 달성

영업환경 우호적이지 않았으나, 전 사업부문 매출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와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에 힘입어 전년비 영업이익 신장

외식/급식 유통

외식/급식, 2,099억원 (-267억원, -11.3% YoY)

전 경로 사업역량 기반 신규수주에 따른 거래처 수 증가 및 외식 FC경로 매출성장으로 취급고 매출 +9.4% 증가했으나 외식 FC경로 매출 일부 순매출로 인식하며 감소되어 보이는 효과 있음

프레시원 유통

연결법인실적: 매출 1,765억원(+14.6% YoY), 매출이익 168억원(+27억원), 영업이익 18억원(+5억원)

1차상품 도매 및 원료

매출 일부 총매출로 인식한 효과 제외 시 소폭 감소

푸드서비스(단체급식)

견고한 신규수주 및 우수한 재계약율 기반 매출 성장. 제조업 경기 불황에 따른 식수감소 및 꽃샘추위에 따른 골프장 오픈 지연으로 영업환경 어려웠으나, 견고한 신규수주실적 기반 매출 증가로 전년비 두 자리 수 매출신장 기록

주요 고객사 재계약 성공으로 높은 재계약율 기록하며 매출증가에 기여

해외 및 기타(송림푸드)

미국·수산물 내수유통 확대, 베트남·안정적 유통망 기반 수입육 내수 유통 공급 안정화, 중국·관계사 공급 증가 및 북경 거점형 물류센터 기반 내수 유통 증가가 매출 증가를 견인
송림푸드-1분기 소스제조업 비수기에 해당하나 제3공장 오픈(18년 2월) 및 가동에 따른 매출 증가

수익성(매출원가, 판관비)

전 사업부문 매출 증가 및 식자재유통 매익률 제고로 매출이익/ 매익률 개선 되었으나 식자재유통 매출 일부 총매출로 인식한 영향 및 지급수수료 일부 순액매출 조정한 영향으로 회계상 감소되어 보임

지급수수료 58억원 감소: 지급수수료 일부 순액매출 조정으로 감소
인건비 31억원 증가, 물류비 6억원 증가

Q&A

Q: 1 차 도매 및 원료 총매출기준으로 변경 이유는?

과거에 구매대행 성격이 강했으나 재고부담을 갖는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순매출 인식을 총매출 인식으로 변경함. 18년 연간 이어지는 내용

1 차 상품 취급고가 전년하고 비교해서 줄어드는 이유는 저마진 고객쪽 디마케팅 때문

Q: 송림푸드 영업이익은?

송림푸드는 지난해 8 억원, 1Q18 5 억원 기록. 매출은 증가했지만 신공장 가동과

관련해서 인건비 등 비용 증가 때문. 2~3 분기 수익성은 전년수준 회복 예상

Q: 식자재유통 경로별 비중은?

외식은 프랜차이즈 70, 레스토랑 30. 대부분으로는 1 차도매 35, 프레시원 25, 외식급식 40

Q: 프레시원 동향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분점이나 커버리지 확대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외형이 일정 규모 넘어가는 지역은 고정비 커버되면서 영업이익 개선되는 흐름

수도권 보다는 지방이 부진. 광주, 부산, 전북, 중부는 외식 경기 부진과 맞물리면서 부진

Q: 푸드빌 컨셉션 영업권 이관

매출액 235 억원 6 개 점포 영업이익 8~10 억원. 급식사업에서 컨셉션과 성격이 비슷한

사업장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 푸드빌은 브랜드가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집중, 브랜드

파워가 약한 컨셉션은 CJ 프레시웨이로 집중. 인수가액 38.3 억원

Q: 전환사채 발행

하이브리드 영구전환사채 발행 13년 기발행분 중에서 만기도래 290 억원 규모 재발행

할증률 18%로 좋은 조건으로 재발행

Q: 급식단가 인상 현황

급식 단가인상은 7~8% 인상하고 1 분기까지 50% 진행. 70% 진행 시 임금 인상분

커버 가능하고 3 분기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5월 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5월 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5월 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